

영유아기의 탁아 경험과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사회정서적 문제행동과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Young Children's Day Care Experience and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Socioemotional Behavior Problems

김 숙 령**
Kim, Sook Ry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preschoolers'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and socioemotional behaviors are related to their day care experiences in infancy and at the present time.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59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from 2-parent, white, middle-class dual earner families in Madison, Wisconsin. Preschoolers' attachment quality was measured by two representational instruments: the Separation Anxiety Test and "My Family and Friends". Mot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about their family background and their children's day care history. The quality of current day care was obtained from directors' reports about regulatable features of the day care centers. Teachers completed 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 Data was analyzed b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quality of preschoolers'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parent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amount of day care during infancy, the quality of current care, and children's gender. In addition, the amount of infant day care appeared to have negative relations with children's socioemotional behavior problems as evaluated by teachers.

Ⅰ. 서 론

최근 수년 동안 영유아의 탁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면서 영유아의 탁아 경험이 발달에

* 이 연구는 1997년도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SRCD) Biennial Meeting in Washinton, DC에서 발표된 포스터 보고서의 확장연구임.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미치는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일어 왔다. 특히 영유아의 애착발달은 이후의 인지적 및 사회정서적 행동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Matas, Arend, & Sroufe, 1978; Sroufe, 1983) 탁아경험과 애착과의 관계는 탁아관련 연구들에 있어서 중점적인 논제가 되고 있다.

영아기의 탁아 경험과 부모에 대한 애착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들이 상호 불일치한 결과를 보고해 왔다. 어떤 연구들(Belsky & Rovine, 1988; England & Hiester, 1995; Lamb, Sternberg, & Prodromidis, 1992)은 애착에 대한 탁아의 부정적인 연구결과를 밝혔으며, 또 반면에 어떤 연구들은 영유아의 탁아 경험이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거나(Hock, 1980; Chase-Lansdale & Owen, 1987), 아니면 다른 변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6). 이렇게 상호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 되는 가운데, 많은 연구자들은 애착에 대한 탁아의 영향은 여러 관련 변인들-탁아의 특성과 양과 질, 처음 탁아를 시작한 시기, 영유아 자신의 특성(성별이나 기질), 그리고 어머니와 가정의 특성에 관계된 여러 변인들이 상호 복잡하게 작용하여 중재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탁아를 경험하는 영유아가 애착을 불안정하게 형성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Belsky, 1988; Clarke-Stewart, 1988; Fein, 1995; Sroufe, 1988).

영유아의 탁아 경험과 애착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Ainsworth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낯선 상황'(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이란 실험절차를 사용하여 영아 애착의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낯선상황' 실험 절차는 종일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는 영아를 대상으

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 측정도구가 탁아를 경험하는 영아들, 즉 날마다 반복적으로 부모와의 격리를 경험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논란이 있어 왔다. 즉 애착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낯선 상황' 절차가 부모와의 격리를 날마다 반복 경험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Clarke-Stewart, 1988; Thompson, 1988) 탁아를 경험하는 영유아들이 회피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탁아를 경험하는 영유아들이 '낯선 상황'에서 보여 주는 회피성은 이들 영유아의 독립성이 일찍 발달되었기 때문이거나(Clarke-Stewart & Fein, 1983) 아니면 가정적 변인이 불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Howes & Olenick, 1986)일 수도 있다고 해석한다.

반면에 탁아를 경험하는 영유아들의 회피성은 어머니로부터의 격리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이 행복하지 못한 경험으로 인한 분노와 불쾌함을 누르기 위한 방어기제로 발달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Basglow, Vaughn, & Molitor, 1987; Belsky, 1986). 즉 불안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격리 경험을 의식적인 수준에서 억압하고, 회피적인 혹은 어머니의 존재에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낯선 상황' 절차에서 회피적 애착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이다(Bretherton, 1985; Fraiberg, Adelson & Shapiro, 1975). 탁아를 경험하는 영유아의 회피성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적지 않은 연구에서 탁아를 경험한 영유아는 공격적이며 비협조적이고 자아통제력이 약하며 주의산만하며 고집이 세다는 결과를 보인 바 있는데(Haskins, 1985; Rubenstein, Howes, & Boyle, 1981),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발달 특성은 흥미롭게도 불안정한 애착의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Bowlby, 1973; Bretheton, 1985; Sroufe, 198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의거하여 과연 영유아기의 탁아 경험이 애착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보되, 애착의 외현적 행동보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 대상에 대한 정신적 표상(내적 실행 모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한편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은 탁아의 질에 의해서도 많이 중재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Howes & Olenik, 1986; Peterson & Peterson, 1986; Phillips, Mc Cartney & Scarr, 1987; Vandell & Power, 1983). 탁아를 똑같이 경험했다 하더라도 탁아기관의 전반적인 질, 환경구성, 교사와의 상호작용 등 탁아경험의 질과 관계된 변인들에 의해 집단내 유아들 간의 차이가 발견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탁아의 영향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아가 현재 다니고 있는 탁아기관의 질을 연구 변인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탁아에 의해 여아보다 남아가 더 부정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에 의거하여(Hock & Clinger, 1980; Belsky & Rovine, 1988; Moskowitz, Schwarz, & Corsini, 1977) 유아의 성별도 고려하였다.

탁아와 애착에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연구도구상의 문제와 함께 최근 야기된 또 다른 문제는 좀 더 나이 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유아기 이후의 애착이 탁아경험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 본 연구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의거하여 선행연구들이 주로 연구대상으로 했던 영아기를 유아기로 확장시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 형성과 함께 애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탁아의 영향을 알아보되 현재 영

아가 아닌 유아기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연구를 실시하는 데에 있다. 즉 애착 측정에 있어서 유아와의 면접을 통해 유아의 애착 대상에 대한 정신적 표상에 대한 정보를 얻어냄으로써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탁아경험과 애착 간의 관계 뿐 아니라, 탁아경험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동시에 밝힘으로써 발달의 제 측면들에 대한 탁아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아기 탁아 경험의 양과 유아기 탁아 경험의 질은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1) 영아기 탁아경험의 양과 유아기 탁아경험의 질은 유아의 격리불안 테스트 결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영아기 탁아경험의 양과 유아기 탁아경험의 질은 유아의 부모 지지에 대한 지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영아기 탁아 경험의 양과 유아기 탁아 경험의 질은 유아의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미국 위스콘신주 메디슨 시에 거주하고 있는 5-6세의 유아들 (N=59, 남아 33명)과 그들의 어머니였다. 탁아 이외의 가정적 변인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모두 양친이 있는 중류층의 맞벌이 가정으로 제한하여 가정적 배경이 유사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유아

들 모두 현재 종일 탁아기관을 다니고 있었으며 영아기의 탁아 경험은 다양하였다. 어머니들은 자료수집 현재 주당 평균 33.9시간 동안 가정 밖에서 직장일을 하고 있었다.

2. 연구도구

유아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2가지 도구가 사용되었다.

1) 격리불안 테스트(Separation Anxiety Test)

Klagsbrun과 Bowlby(1976)의 격리불안 테스트를 Slough와 Greenberg(1990)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격리불안 테스트는 피험자 유아와 비슷한 나이의 주인공이 부모와 분리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6가지의 사진으로 이루어진 투사적인 면접법이다. 각 사진이 제시될 때마다 유아는 사진의 주인공이 어떻게 느낄 것인지(감정적 배경), 왜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하는지(감정의 정당화), 그리고 사진의 주인공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대처활동)에 대해 반응하도록 요구된다. 6가지 장면의 사진에 있어서 부모와의 격리 정도가 심한(예, 부모님이 유아를 두고 2주일 동안 멀리 떠나심) 3가지와 정도가 약한(예, 어머니께서 유아를 잠자리에 눕혀 주고 방을 나가심) 3가지 사진 각각에 대한 유아의 반응 유형에 따라 3가지 요인별 점수, 즉 '애착', '자기 신뢰성', 그리고 '회피성'의 점수가 얻어진다. 각 요인별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 점수는 유아가 극복하기에는 정도가 심한 3가지 격리상황(사진 1, 부모님이 유아를 두고 저녁 외출을 하심; 사진 2, 부모님의 주말여행; 사진 4, 부모님이 2주일 동안 멀리 여행을 가심)에 의거하여 산출된다.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유아의 반응은 다음의 <표 1>에서 제시된 유형 중(5가지 상위유형 및 21가지 하위유형)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1~4점 사이의 점수가 주어지는데 '애착형' 반응에 높은 점수가 주어진다. 따라서 애착 점수는 최고 12점(4점×3가지 상황)에서 최저 3점까지 이른다.

'자기 신뢰성' 점수는 격리 정도가 약하여 유아 수준에서 대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기대되는 3가지 격리 상황(사진 3, 새로운 유치원(어린이집)에 온 첫날 아이를 두고 어머니가 떠나심; 사진 5, 공원에서 부모님끼리 대화하기 위하여 아이에게 저쪽으로 가서 혼자 놀고 있으라 하심; 사진 6, 아이를 잠자리에 눕히고 방을 나가심)에 대한 유아의 반응에 의해 산출된다. 유아의 대답이 반응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1~4점 사이의 점수가 주어지되 자기 신뢰적인 반응에 높은 점수가 주어진다. 자기 신뢰성 점수 범위 역시 3~12점 사이가 된다.

끝으로 '회피성'의 점수는 6가지 사진 모두에 대하여 주어지는데 각 반응에 대해 1~3점 사이의 점수가 주어진다. 대답이 회피적(격리상황에 대해 대답을 회피하거나 상황과 관계 없는 엉뚱한 대답을 함)이거나 비전형적(부모와의 격리에 대해 행복해 하거나 슬퍼하더라도 격리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슬퍼함), 또는 이상야릇한 대답(죽음이나 영원한 이별을 언급)을 하면 회피성의 점수가 높아진다. 회피성의 점수는 최고 18점(3점×6가지 상황)에서부터 최저 6점에 이른다.

검사자들 간의 채점 일치도를 알아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25%(N=15)를 무작위 추출하여 Kappa coefficient를 산출한 결과, 애착은 .64, 자기신뢰성은 .65, 그리고 회피성은 .5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Pearson의 r 을 산출했을 때에는 애착이 .84, 자기신뢰성이 .87, 그리고 회피성은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격리불안 테스트 채점을 위한 반응유형 분류표

5가지 상위 유형 (main categories)		21가지 하위유형(subcategories)
애	착	1. 전형적 애착 2. 높은* 애착 3. 낮은** 애착 4. 애착/보복 5. 애착/부모에의 접근행동 6. 비전형적인 애착(격리를 인정하지 않고 행복해 함)
자	기 신 퇴	7. 전형적인 자기신뢰 8. 높은 자기신뢰 9. 낮은 자기신뢰 10. 비전형적인 자기신뢰(격리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슬퍼함)
애착/자기신뢰		11. 전형적인 애착/자기신뢰 12. 높은 애착/자기신뢰 13. 낮은 애착/자기신뢰 14. 애착/자기신뢰/부모에 대한 이미지 15. 애착/자기신뢰/부모에의 접근행동
회	피	16. 회피성 17. 회피성/혼동된 대답(3, 6, 9, 10, 13번의 하위유형도 이에 속함)
기	타	18. 불안 19. 불안/부모에의 접근행동 20. 비전형적인 대답(예, 부모와의 격리에 대한 행복감) 21. 이상야릇한 대답(예, 죽음이나 영원한 이별)

주) * 유아가 대답하는 내용 중에 부모와 격리되는 상황을 대처하는 좋은 방법을 보이면(예, 할머니하고 함께 있을 거예요) ‘높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줌.

** 유아가 면접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거나 회피적으로 반응하면 ‘낮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줌.

2)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My Family and Friends)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Reid & Landerman, 1988)는 유아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즉 유아가 필요할 때 주변인물을 얼마나 이용가능하다고 느끼며 그들의 도움에 대해 얼마

나 만족하는가를 측정한다. 12가지의 대화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도구는 반구조적인 면접법으로서 정서적(emotional), 정보적(informational), 도구적(instrumental), 동료적(companionship) 지지 및 갈등(conflict)의 5가지 차원을 다루고 있다. 부모의 애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친구

나 다른 주변 인물에 대한 정보는 제외하고 부모에 관계된 정보만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5가지 차원 중에서 부모에의 애착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Bretherton, 1992) 정서적 지지와 동료적 지지에 관한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유아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에 대한 공유(예, 너에게 좋은일 나쁜일이 생겼을 때 엄마에게 말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니?)나 유아의 자아 존중감(예, 엄마가 네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실 때 너는 얼마나 많이 좋아지니?)이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훌륭하게 해 주는(예, 엄마는 너를 얼마나 잘 이해해 주니?)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동료적 지지는 유아가 상대방과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재미를 느끼고 행복한지(예,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재미있니?)의 정도를 다루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만족 정도는 0점(낮음)~50점(높음) 사이의 높낮이를 움직일 수 있는 온도계 그림판에 유아가 스스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이 외에 유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Behar(1974)의 유아행동설문지(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유아행동설문지는 유아의 교사에 의해 평정되는 3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적대적-공격적, 불안-두려움, 그리고 과활동적-주의산만의 3가지 차원의 점수와 문제행동 총점이 산출된다. 또한 어머니에 의해 연구대상 유아의 영아기 탁아 경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질문지가 본 연구자에 의해 작성되어 사용되었다. 그리고 유아들이 현재 등록하여 다니고 있는 탁아기관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사 대 유아의 비율, 학급 크기, 교사와 기관장의 학력과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기관장으로부터 얻어내었다.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본 논문의 주 연구문제를 위하여 SPSS/PC 프로그램을 통해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영유아기의 탁아경험과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의 관계

1) 영유아기의 탁아경험과 유아의 격리불안 테스트 점수와의 관계

본 논문에서는 탁아경험과 관련된 변인을 영아기 탁아경험의 양과 유아기 탁아경험의 질, 2가지로 나누어 구별하였다. 영아기 탁아 경험의 양은 조사대상 유아가 생후 1년 동안 주당 몇시간 동안 탁아기관에 다녔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 유아기 탁아경험의 질은 조사대상 유아가 현재 다니고 있는 탁아기관의 학급 크기, 교사대 유아의 비율, 교사의 학력에 대한 것을 점수화한 것이다. 이 점수를 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탁아기관의 질과 관련된 변인들 중 학급 크기, 교사 대 유아의 비율, 기관장과 교사의 학력과 경력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변량의 최대치를 설명해 주는 세가지 변인 (고유치(eigenvalue)=3.13)을 구하였다. 즉 학급 크기, 교사 대 유아의 비율, 그리고 교사의 학력, 이 세 변인을 구하였는데 이 세 변인의 각 요인계수(factor score coefficients)에 표준치(standardized value)를 곱하여 합산함으로써 유아기 탁아경험의 질에 관한 점수를 구하였다. 영유아기의 탁아경험과 애착과의 관계에 관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격리불안 테스트

에서 나타난 부모에 대한 유아의 애착 점수는 유아의 성별 및 현재 경험하고 있는 탁아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R^2=.19, p<.01$), 영아기에 경험한 탁아의 양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R^2 증가량=.12, $p<.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애착 점수가 높았으며, 현재의 탁아의 질이 높을수록 그리고 영아기의 탁아경험의 양이 적을수록 애착 점수가 높았다.

자기 신뢰성과 회피성에 있어서는 변인들 중에

영아기 탁아경험의 양만 의미 있는 관련 변인으로 나타났다(R^2 증가량=.08, $p<.05$; R^2 증가량=.11, $p<.05$). 최종 방정식에서 나타난 베타 계수(beta weight)를 보면 영아기의 탁아경험의 양은 유아의 자기 신뢰성과 부적관계를(beta=-.33, $p<.05$), 유아의 회피성과는 정적인 관계를(beta=.42, $p<.05$)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2〉 격리불안 테스트의 요인별 점수에 대한 영유아기탁아 경험의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 결과

	예 측 변 인				
	1단계		2단계		3단계
	성별, 유아기 탁아경험의 질		영아기 탁아경험의 양		성별×영아기 탁아경험의 양
격리불안테스의 각 요인	R^2	R^2 증가	R^2	R^2 증가	R^2
부모에 대한 애착	.19**	.12**	.31***	.03	.34***
자기신뢰성	.01	.08*	.09	.00	.09
회 피 성	.04	.11*	.15*	.01	.16

* $p<.05$ ** $p<.01$ *** $p<.001$

〈표 3〉 격리불안 테스트의 요인별 점수에 대한 각 예측 변인들의 베타계수(beta weight)

분리불안테스트의 각 요인	Beta					F
	예 측 변 인					
	유아기 탁아경험의 질	성 별	영아기 탁아경험의 양	성별×영아기 탁아경험의 양		
부모에 대한 애착	.32**	.07	-.50**	.34		6.96***
자기신뢰성	.14	-.09	.33*	.09		1.37
회 피 성	-.16	-.01	.42*	-.16		2.51

* $p<.05$ ** $p<.01$ *** $p<.001$

2) 영유아기의 탁아경험과 유아의 부모 지지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를 통해 조사한 부모 지지에 대한 유아의 지각 점수에 있어서는, 흥미

롭게도 독립변인들이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동료적 지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성별 및 유아기 탁아경험의 질과 영아기 탁아경험의 양

모두 유아가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영향을 미쳤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더 긍정적으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를 느끼고 있었으며, 유아기 탁아 경험의 질이 낮을수록 그리고 영아기에 탁아경험을 많이 했을수록 유아는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덜 느끼고 있었다. 주목할 것은, <표 5>에서 보면 회귀분석의 최종방정식(final equation)에서 영아기 탁아경험의 양은 유아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도와 매우 깊은 관계(beta = -.32, $p < .05$)에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아버지의 지지에 있어서는 어머니와는 반대로 동료적 지기 점수에 성별과 영아기 탁아경험의 양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쳤다(R^2 증가량 = .07, $p < .05$). 즉 여아보다 남아가, 그리고 영아기의 탁아경험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동료적 지지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타계수를 보면 영아기의 탁아 경험의 양이 유아기에 지각하는 아버지의 동료적 지지도와 부적 상관관계(beta = -.39, $p < .05$)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영유아기 탁아경험의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 결과

	예 측 변 인				
	1단계	2단계		3단계	
	성별, 유아기 탁아경험의 질	영아기 탁아경험의 양	성별 × 영아기 탁아경험의 양	R^2 증가	R^2
부모지지에 대한 지각	R^2	R^2 증가	R^2	R^2 증가	R^2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	.02	.06	.08	.01	.09
동료적 지지	.05	.02	.07	.07*	.14*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11*	.08*	.18*	.00	.18*
동료적 지지	.08	.02	.10	.01	.11

* $p < .05$

<표 5> 유아의 부모지지 지각에 대한 각 예측변인들의 베타계수(beta weight)

	Beta					F
	예 측 변 인					
	유아기 탁아경험의 질	성 별	영아기 탁아경험의 양	성별 × 영아기 탁아경험의 양		
부모지지에 대한 지각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	.06	.01	-.32	.14	1.31	
동료적 지지	.07	-.18	-.39*	.51*	2.19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04	.24	-.32*	.09	3.03*	
동료적 지지	.04	.12	-.23	.19	1.59	

* $p < .05$

2. 영유아기의 타아경험과 유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과의 관계

교사의 평가에 의한 유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점수(유아행동설문지)에 대한 영유아기의 타아경험의 영향은 <표 6>과 <표 7>에 나타나 있다. 유아행동설문지 하위 요인 중 불안-두려움 점수는 영아기 타아경험의 양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R^2 증가량=.10, $p<.05$). 과활동적-주의산만은 성별과 유아기 타아 경험의 질과 관계가

있었으며($R^2 = .12$, $p<.05$), 영아기 타아경험의 양($R^2 = .15$, $p<.05$) 및 성별×영아기 타아경험의 양($R^2 = .16$, $p<.05$)을 포함한 전체의 변인에 의해서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을 전반적으로 말해주는 유아행동설문지 총점을 보면, 영아기의 타아경험의 양에 의해 변량의 12%가 증가하였으며($p<.01$), 네가지 변인 전체에 의해서는 변량의 23%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6> 유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대한 영유아기 타아경험의 유계적 중다 회귀분석 결과

	예 측 변 인				
	1단계	2단계		3단계	
	성별, 현재 타아경험의 질	영아기 타아경험의 양	성별×영아기 타아경험의 양	R^2 증가	R^2
유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R^2	R^2 증가	R^2	R^2 증가	R^2
적대적-공격적	.03	.06	.09	.02	.11
불안-두려움	.05	.10*	.15*	.05	.20*
과활동적-주의산만	.12*	.04	.15*	.01	.16*
문제행동 총점	.07	.12**	.19**	.03	.23**

* $p<.05$ ** $p<.01$

<표 7> 유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에 대한 각 예측변인들의 베타계수(beta weight)

유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Beta					F
	예 측 변 인					
	유아기 타아경험의 질	성 별	영아기 타아경험의 양	성별×영아기 타아경험의 양		
적대적-공격적	-.10	.04	.37*	-.24		1.61
불안-두려움	-.08	.13	.52**	-.43		3.29*
과활동적-주의산만	-.28*	-.11	.26*	-.15		2.58*
문제행동 총점	-.19	.06	.52**	-.36		4.01**

* $p<.05$ ** $p<.01$

각 변인별 beta 계수를 보면 현재 경험하는 타아의 질은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중 과활동성-주의산만성에 대하여만 $-.28(p < .05)$ 의 크기를 가진 반면에, 영아기의 타아경험의 양은 적대적-공격적(beta = .37, $p < .05$), 불안-두려움(beta = .52, $p < .01$), 및 유아행동설문지 총점(beta = .52, $p < .01$)과 유의미하게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유아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타아의 질이 좋을수록, 그리고 영아기에 경험한 타아의 양이 적을수록 교사에 의해서 유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사회적 변화와 함께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2, 3세 미만, 즉 어머니의 보살핌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어린 시기의 아동에 대해 어머니 이외의 양육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국내에서는 아직 활발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있으나, 외국의 선행연구를 보면 결론이 저마다 불일치 하는 가운데 타아를 경험한 영유아는 대체로 부모에 대해 애착을 불안정하게 형성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최근에는 연구자들이 지난 20여년 간의 타아관련 연구들을 종합·분석하고 집단 간(영유아기에 타아를 경험한 아동 대 어머니 양육 아동) 차이보다는 집단내 차이(영유아기에 타아를 경험한 아동이든 어머니에게 양육된 아동이든 이들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다른 제 변인에 관심을 갖음)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Silverstein, 1991).

본 논문에서는 타아관련 제 변인들 중 가정적 변인의 차이를 표집 과정에서 최소화하고, 선행연

구에서 지속적으로 중시되어 온 변인들-영유아기의 타아경험의 양, 타아의 질, 그리고 영유아의 성별-을 고려하여,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 왔던 영유아의 발달 측면, 즉 애착과 사회정서적 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발달 측면이 영유아의 타아경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영아기에 경험한 타아의 양과 현재 경험하는 타아의 질, 그리고 유아의 성별과 관계가 있었다. 남아보다 여아가, 영아기의 타아경험의 양이 적을수록, 그리고 현재의 타아의 질이 높을수록 유아는 부모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타아의 부정적 영향에 여아보다 남아가 더 취약하다는 선행연구들(Belsky & Rovine, 1988; Hock & Clinger, 1980; Moskowitz, Schwarz, & Corini, 1977)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애착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영아기에 타아를 많은 시간 동안 경험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불안-회피적으로 애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들(Belsky & Rovine, 1988; England & Hiester, 1995; Lamb, Sternberg, & Prodromidis, 1992)과도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영아기의 타아 경험의 양이 적을수록 유아기에 자기 신뢰성은 높은 반면 회피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영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낮선상황' 실험절차를 사용한 선행연구의 결과(회피적 애착행동)가 유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 대상에 대한 정신적 표상(면접에서의 언어적 반응)에 의거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많은 양의 타아를 경험한 영아가 '낮선상황'에서 보여주는 '회피적' 행동이 그들의 '독립성'이나 '자립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Clarke-Stewart와 Fein(1983)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아가 경험하는 타

아의 질이 좋을수록 부모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탁아의 부정적 영향이 탁아의 질에 의해 중재된다는 선행연구(Hestenes, Kontos, & Bryan, 1993; Howes & Olenick, 1986; Owen, Cross, Henderson, & Cox, 1989; Phillips, McCartney, & Scarr, 1987)를 뒷받침한다.

둘째,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반영하는 또 다른 측면으로서 부모의 지지(support)에 대한 유아의 지각 정도를 측정된 결과, 위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지지에 있어서 유아는 영아기에 탁아경험을 많이 했을수록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를 덜 느꼈고, 이러한 경향은 여아보다 남아에게 있어서 더욱 두드러져, 역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남아의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유아의 아버지의 지지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는 유아의 성별과 영아기 탁아경험의 양이 아버지의 동료적 지지와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과 애착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어머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시점에서 영아기의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하겠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아동의 애착 특성은 다르지만 탁아경험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탁아와 애착에 관계된 연구에서 아버지 관련 요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영아기 탁아경험의 양이 많은 유아들은 영아기 탁아경험이 없거나 적은 유아들보다 교사에 의해 불안-두려움, 과활동적-주의산만 등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역시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더욱 많이 나타났으며 현재 경험하는 탁아의 질에 의해 중재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탁아의 질은 유아의 사회적 행동(Owen, Cross, Henderson, & Cox, 1989; Vandell, Henderson, &

Willson, 1988)이나 사회성 발달(Phillips, McCartney, & Scarr, 1987), 협조성이나 자아 통제력(Howes & Olenick, 1986) 및 미소나 웃음 등의 긍정적인 정서 표현(Hestenes, Kontos, & Bryan, 1993)과 관계가 있다고 밝혀져 왔다. 교사평정에 의한 본 연구의 결과가 주로 연구자의 관찰에 의해 이뤄진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영아기의 탁아경험의 양과 유아기의 탁아의 질이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유아 자신의 변인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탁아의 부정적인 영향은 하나의 경향이며 탁아를 경험한 모든 유아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 가시적으로 또는 잠재적(potential)으로 존재하는 탁아의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하지 않는 가운데 집단내 차이(예, 탁아를 경험한 영유아 가운데 긍정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적 또는 맥락적인 제 변인들을(context variables)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탁아 수요가 급증하고 더 이상 영유아 탁아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어가는 많은 가정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맞벌이 가정 영유아들이 최적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속 연구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Ainsworth, M. D. D.,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87).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 Barglow, P., Vaughn, B. E., & Molitor, N. (1987). Effects of maternal absence

- due to employment on the qua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a low-risk sample, *Child Development*, 58, 945-954.
- Behar, L. & Stringfield, S. A. (1974). A behavior rating scale for the preschool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10, 601-610.
- Belsky, J. (1986). Infant day care: A cause for concern. *Zero to Three*, 6, 1-7.
- Belsky, J. (1988). The "effects"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235-272.
- Belsky, J., & Rovine, M. J. (1988).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the security of infant-par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57-167.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3-4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se-Lansdale, P. L., & Owen, M. T. (1987). Maternal employment in a family context: Effects on infant-mother and infant-fa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8, 1505-1512.
- Clarke-Stewart, K. A. (1988). *Is day care bad for babies?* Paper presented at ICIS, Washington, D. C.
- Clarke-Stewart, K. A., & Fein, G. G. (1983). Day care and the child's attachment to the mother. In M. M. Haith & J. J. Campos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2. (pp. 945-957). New York: Wiley.
- Egeland, B., Hiester, M. (1995).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infant day-care and mother-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6(2), 474-485.
- Fein, G. G. (1995). Infants in group care: Patterns of despair and detach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3), 261-275.
- Fraiberg, S. Adelson, E., & Shapiro, V. (1975). Ghosts in the nursery: A psychoanalytic approach to the problems of impaired infant-mother relationship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4, 387-421.
- Haskins, R. (1985). Public school aggression among children with varying day care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56, 689-703.
- Hestenes, L.L., Kontos, S., & Bryan, Y. (1993).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in child care centers varying in qualit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3), 295-307.
- Hock, E. (1980).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and their infants: A comparative study of maternal caregiving

- characteristics and infants' social behavior. *Merrill Palmer Quarterly*, 46, 79-101.
- Hock, E., & Clinger, J. B. (1980). Behavior toward mother and stranger of infants who have experienced group care, individual care, or exclusive maternal care.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3, 49-67.
- Howes, C. & Olenick, M. (1986). Family and child care influences on toddler's compliance. *Child Development*, 57, 202-216.
- Klagsbrun, M., & Bowlby, J. (1976). Responses to separation for parents: A clinical test for young children. *British Journal of Projective Psychology and Personality Study*, 21, 7-27.
- Lamb, M.E., Sternberg, K.T., & Prodomidis, M. (1992). Non-maternal care and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reanalysis of the data.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5(1), 71-83.
- Matas, L., Arend, R. A., & Sroufe, L. A. (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 Moskowitz, D., Schwartz, J. & Corsini, D. (1977). Initiating day care at three years of age: Effects on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48, 1271-1276.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6). Infant child care and attachment security: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Paper presented at ICIS, Providence, RI.
- Owen, M. T., Cross, D. R., Henderson, V. K., & Cox, M. J. (1989, April). *Relations between child care quality and child behavior at age 4: The significance of family dynamics*. Pap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Kansas City.
- Peterson, C. & Peterson, R. (1986). Parent-child interaction and day care: Does quality of day care matte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7, 1-15.
- Phillips, D., McCartney, K. & Scarr, S. (1987). Child-care quality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3, 537-543.
- Reid, M., & Landesman, S. (1988). *My family and friends: Manual for conducting dialogues with children about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 Rubenstein, J., Howes, C., & Boyle, P. (1981). A two-year follow-up of infants in community-based day car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 209-218.
- Silverstein, L. B. (1991, October). Transforming the debate about child care and maternal employment. *American Psychologist*, 46(10), 1025-1032.

- Slough, N. N., & Greenberg, M. T. (1990). Five-year-olds' representations of separation from parents: Responses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and other. In I. Bretherton & M. W. Watson (Eds.), *Children's perspectives on the family,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48*, 67-84.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roufe, L. A. (1983). Infant-caregiver attachment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preschool: The roots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lmutter (Ed.), *Minnesota symposium in child psychology* (Vol. 16, pp. 41-81) Hillsdale, N.J: Erlbaum.
- Sroufe, L. A. (1986).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day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283-291.
- Thompson, R. A. (1988). The effects of infant day care through the prism of attachment theory: A critical appraisa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273-282.
- Vandell, D., Henderson, V., & Wilson K. (1988).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with day-care experiences of varying quality. *Child Development, 59*, 1286-1292.
- Vandell, D. L., & Power, C. P. (1983). Day care quality and children's free play activit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3*, 493-500.